



## 원주민 이미지에 관한 단상

권 봉 철

“Tlahtolli zan ihqui mixtli, axqueman tlami”(말은 구름과 같아서 다함이 없다). 우와스테카 나우아 어(Huasteca Nahuatl)를<sup>1)</sup> 사용하는 돈 코스메(Don Cosme)라는 전통 민간 주술사의 말이다. 말(언어)을 구름에 비유하여, 구름은 덧없이 흩어지지만 또 끊임없이 일어나고 변해가면서 우리와 함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멕시코 국립원주민언어연구소(INALI)에 의하면, 현재 멕시코에는 68개의 원주민 언어가 남아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나우아 어는 지역에 따라 30여 개의 방언으로 나뉘며, 200만 명 정도가 사용한다.

나우아 어는 유카탄 지방의 마야어, 안데스 지역의 케추아 어, 아이마라 어와 더불어 단일어로는 사용자수가 100만 명을 상회하는 대표적인 원주민 언어이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언어가 그렇다는 것이고, 지난 수만 년 동안 아메리카 대륙과 카리브해 도서에서는 수많은 종족과 문화와 언어가 구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특히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집중되었던 서유럽 국가의 혹독한 침략 전쟁과 이후의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 원주민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아 왔다. 실제로 카리브해 지역의 원주민은 완전히 멸절되었다.

1) 나우아 어의 방언으로 우아스테카 지방에서 많이 사용한다.

일례로 카리브해의 섬나라 쿠바를 보자. 지리적으로 카리브해에 위치한 여러 섬을 유럽인은 서인도제도라고 명명했고, 그곳에 처음 자리잡고 살던 사람들은 스페인인에 의해 모두 죽임을 당했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흑인이 강제로 잡혀 왔다. 언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종교 문화는 대체로 가톨릭이다. 이 섬나라에 원래 살던 사람들과 그들이 사용하던 언어, 그들이 믿던 신, 어느 하나 살아남은 것이 없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은 그저 땅덩어리 뿐이다. 그래도 여전히 이 땅에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말도 하고 나름의 새로운 문화를 꽃피우고 있다. 이를 우리는 흔히 ‘라틴 문화’라고 일컫는다.

한때 경제적으로 세계 2위의 선진국이었다고 자랑하는 아르헨티나에서는 국가형성 과정에서 원주민을 정책적으로 몰살시켰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미의 파리’라는 명성을 얻었다. 미국에는 몇몇 인디언이 보호구역 내에서 살아간다. 그들은 그나마 수백만 명 중에서 겨우 목숨이라도 유지한 것 자체를 정부 당국에 감사해야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유대인은 스스로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항변이라도 할 수 있지만, 미국의 원주민은 도리어 호의를 강요당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그들의 현재 처지를 가감없이 대변해 주고 있다.

흔히 아메리카 원주민을 언급할 때 연상되는 장면이 몇몇 있다. 첫째, 독립한 미국이 서부 개척이라는 미명하에 자행한 인디언 말살 전쟁에서 죽어가는 인디언 추장. 존 웨인(John Wayne)은 서부영화라는 장르를 통해 그렇게 말 탄 정의의 사도로서 미국의 번영기를 대변했다.

둘째, 마야, 아스테카, 잉카 등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피라미드와 석조 건축물에서 이루어지는 인신공희. 멜 깁슨(Mel Gibson)의 영화 <아포칼립토> (Apocalypto)가 좋은 예이다. 이 영화에서는 마야인이 인신공희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야만적이고도 무의미하게 인간을 고기덩이처럼 다루는지 거대한 화면 가득히 지겹도록 보여주다가 뜬금없이 카리브해 동쪽에서 서광처럼 비치는 스페인의 배 세척을 구세주인양 보여주며 끝난다.

셋째, TV 화면을 가득 채우는 아마존 밀림 속의 벌거벗은 원시 부족. 그래서 우리에게도 참 친숙할 것같은 조에(Zoé)족은 지구 반 바퀴를 돌아 한국 자본주의 시장에 그 얼굴을 내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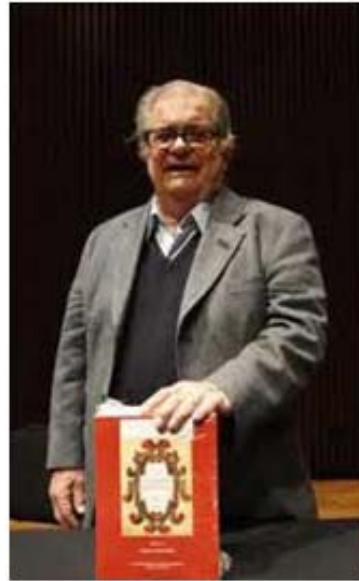
먼 옛날 태양을 쫓아 이 땅에 첫발을 들여 놓았던 사람들은 ‘인도 사람’(Indian, Indio)으로 불리기도 하고, 찬란했던 옛 로마의 후손들인 스페인과 프랑스 문화의 세례를 받은 라틴아메리카 사람으로도 불린다. 인들이 멕시코 국립인류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을 만든 주체였다. 현대인은 박물관을 둘러보는 동안 찬탄을 금치 못하며 멕시코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노라 되뇌지만, 정작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원주민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며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걸림돌 취급을 한다.

아메리카 대륙과 주변 섬에서 살아온 원주민은 다양하다. 수백 종의 다양한 언어로 말하고 각자의 고유한 인식체계와 역사 경험을 가진 여러 부족과 사회와 나라를 동시에 일컫는다. 멕시코국립대학교의 렌케르스도르프(Carlos Lenkersdorf) 선생은 20년 동안 치아파스의 토홀라발(Tojolabal) 부족과 함께 생활하며 연구했다. 철학박사인 선생은 고유한 언어를 지닌 민족에게 어떻게 나름의 철학이 없겠느냐고 도리어 반문한다. 그는 토홀라발 언어를 연구하면서 그 언어가 지니는 인식의 층위까지 내려가서 우주론적 세계관을 설명해내며 원주민 문화와 연구의 새로운 장을 제시해 보였다.

16세기 아스테카, 잉카 제국의 중심부가 스페인에 ‘정복’되면서, 유럽으로 신대륙의 다양한 문물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스테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한번에 인신공희로 제단에 바쳤는가, 심장을 어떻게 태양에 바쳤는가를 과장하며 신기해 했다. 겨우 20세기에 와서야 앙헬 마리아 가리바이(Angel María Garibay) 선생이 나우아 시(詩)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스페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미겔 레온 포르티야(Miguel León Portilla) 선생이 나우아 철학을 연구하면서 비로

소 아스테카인들의 철학과 시에 관해서도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고전 나우아 시가(詩歌) 92편이 모두 스페인어로 완역되어 연구서와 함께 총3권으로 멕시코국립대학교에서 출간되었다.

기존의 아메리카 원주민에 관한 이미지로 미루어 볼 때, 원주민의 책과 문자, 철학과 시는 우리에게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이 모든 것은 오직 16세기 당시의 그리스도교 서유럽인이 보아도 믿지 않고, 있어도 인정하지 않았던 편협한 사고와 편견에서 유래한다. 거기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유럽(미국) 중심주의와 기독교의 배타주의가 내포한 인식론적 우열체계가 한몫을 더했을 것이다.



미겔 레온 포르티야 (Miguel León Portilla) 교수



플로렌스 고사본(Códice Florentino), 제12권, 일부

정복 전쟁과 식민지를 거치며 메소아메리카 문명권의 식자층은 자신들의 옛책을 한 권이라도 소지한 대가로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 마야와 아스테카의 도서관은 파괴되었고 종이책(Amoxtli)이나 사슴 가죽으로 만든(양은 없었으므로) 두루마리 등은 모두 불구덩이로 던져졌다. 요행히 화마를 모면한 책 열여섯 권이 전해오고 있지만, 그나마 식민 종주국인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보관하고 있고, 멕시코에는 국립인류학박물관 도서관에 한 권

(Códice Colombino)이 있을 따름이다. 살아남은 일부 식자층의 기억과 식민 당국의 정치적 종교적 필요에 의해 수많은 책 중 일부가 고사본(Códice)이라고 일컫는 책으로 복원되었다. 국립인류학박물관 도서관에 소장된 500여 종의 고사본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류기록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또한 멕시코국립문서보관소(AGN)에는 나우아어로 기록된 수많은 문서가 있다. 이 중에 33종의 후작령 고사본(Códices del Marquesado)이 있는데, 아스테카 제국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에게 스페인 왕은 후작(Marqués)이라는 작위와 함께 영지를 하사했다. 후일 코르테스의 아들이 멕시코 시티에서 오아하카를 아우르는 영지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조상 대대로 이 땅에서 밭갈며 살아 왔던 이 지역의 농민들은 자기들이 언제부터 이곳



후작령 고사본(Códices del Marquesado del Valle), 일부

에 살아 왔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토지 문서를 만들어야 했다. 아스테카 제국의 언어가 나우아어였던 관계로 정복기 이후 16세기에도 여전히 나우아어는 스페인어와 함께 통용어(Lingua Franca)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문서는 지도 형태의 그림을 첨부하여 나우아어와 스페인어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아메리카 지역의 수많은 문화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회문화사를 연구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문헌이 나우아어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정복 이후에는 로마자를 차용해 작성된 수많은 원주민어 기록이 있다. 영어와 스페인어가 로마자를 차용해 자기 말

소리를 체계적으로 적는 것과 같은 방식의 기록물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폴루』는 과테말라의 키체 마야어로 기록된 것이다.

원주민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삶과 애환이 그대로 드러난 자료를 해석하고, 생성 맥락을 이해하려면, 그들에게 삶의 현장이었던 그 시대의 인식 층위로 들어가야만 한다. 단순한 언어의 번역이 아니라 인식체계를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다. 역사학과 언어학, 문헌학과 도상해석학을 아우르는 지역학적인 학제간 연구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각 해당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몫일 것이다.

현재 멕시코에는 원주민 언어로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들의 모임인 원주민언어작가협회(Escritores en Lenguas Indígenas A.C.)가 구성되어 있다.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자신들의 언어와 스페인어로 이중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골에 가면 모든 일상 언어는 원주민어로 이루어 진다. 학교에서 자기들 언어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권익은 스스로가 주장하고, 불합리한 차별은 시정하도록 노력하는 원주민 모임이 있다. 멕시코시티에 있는 ‘원주민이주자협회’(Asamblea de Migrantes Indígenas)가 바로 그것이다. 각 지방에서 멕시코 시티로 이민 온 원주민의 연합체이다. 이들은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가 인디오(Indio)라고 칭해지는 스스로에 대한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바로잡고자 노력한다. 편견을 지닌 말 한마디라도 바로 잡으려 노력하고, 잘못 고착된 이미지 하나라도 다시 재고해보는 것이 타자와의 만남을 위한, 지역 연구를 위한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권봉철 - 멕시코국립대학교 메소아메리카학 박사과정 수료